

유통업계 하비슈머 잡기 다양한 마케팅

〈취미+소비자〉

취미 활동에 지갑 여는 소비자 늘어 쿠킹클래스, 게임·스포츠 협업 다채로운 콘텐츠로 고객몰이

유통업계가 취미에 아까지 않고 지갑을 여는 이른바 '하비슈머'를 타겟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하비슈머는 '취미(hobby)'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유통업계는 스포츠와 게임, 요리 등 소비자의 취미에 맞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고객몰이에 나섰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이달부터 '아웃백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를 운영한다.

쿠킹클래스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10여 년 경력의 아웃백 셰프팀이 총출동해 강사로 나선다. 소고기와 스테이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아웃백

전문 셰프들이 다년간 축적된 스테이크 쿠킹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샘표는 지난 7월 오프라인 쿠킹클래스 '우리, 즐겁게 요리해요'를 개최했다. 대학생과 직장인, 퇴직자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는데, 최근 요리에 대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맛있는 한끼'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식품제조 업체 오투기도 최근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대풍공장 견학을 재개했다.

게임과 손을 맞잡은 마케팅도 눈에 띈다.

'코카콜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 게임 개발사이자 배급사인 라이엇 게임즈와 협업해 지난 6월 '코카-콜라 제로 레전드'를 출시한 바 있다. 음료 패키지를 LoL의 배경이 되는 '소환사의 협곡'을 적용해 LoL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GS25는 컴투스 모바일 게임 '미니게임천국'의 글로벌 론칭을 기념해 협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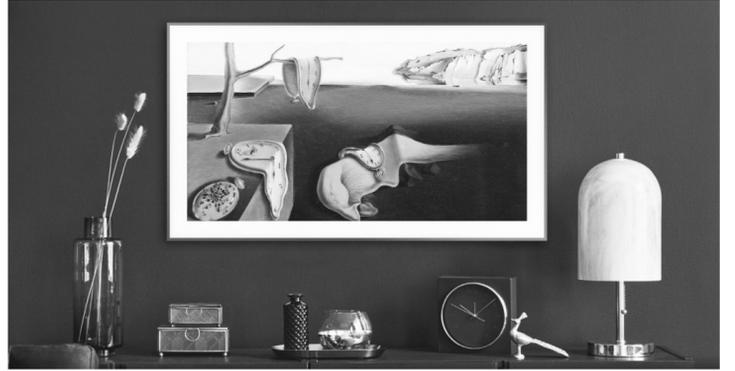
8월 한 달간 GS25 편의점에서 '베이컨잡치마요 삼각김밥', '야삭햄치즈 샌드위치' 등 미니게임천국 협업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상품에는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래치 쿠폰을 부착했다.

앞서 버거킹은 PC게임 '디아블로IV'의 출시를 기념해 '헬로 디아블로와파'를 선보였다. 협업 제품 3종 중 1종 이상 구매 시 디아블로 IV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섬뜩한 우리' 가슴 방어구 아이템 코드를 선착순 한정으로 증명하기도 했다.

스포츠도 빼놓을 수 없다.

푸마(PUMA)는 지난달 한국 축구 팬을 위한 '스페셜 폰트 저지'를 한정 수량으로 선보였다. 맨체스터 시티 FC 2023-24시즌 공식 홈 유니폼에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폰트를 적용했다. 한글의 아름다운 곡선미와 태극 문양에서 얻은 영감과 붓글씨 필감을 살린 디자인적 요소를 더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프링글스는 야구 시즌에 맞춰 '야구 응원 캠페인 시즌2'를 전개한다. 나에게 맞는 야구 응원 성향과 프링글스 제품을 추천 받을 수 있는 '야구 응원 성향 테스트', '프링글스와 함께한 야구 관람 모습을 촬영하거나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응원 플랜카드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야구 응원 챌린지' 등의 이벤트에 참여 시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더 프레임'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기억의 지속' 작품.

삼성TV '더 프레임'서 달리 작품 12개 만난다

살바도르 달리 재단과 협약

삼성전자는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The Frame)'을 통해 스페인 초현실주의 거장이라 불리는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살바도르 달리 재단'과 협약을 맺고 살바도르 달리의 대표작 '기억의 지속', '기억의 지속의 해체'를 포함한 12점의 삼성 아트 스토어에 선보였다.

더 프레임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인 삼성아트 스토어는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과 갤러리가 소장한 명화를 비롯해 사진·일러스트·디지털 아

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 약 2300점을 4K 화질로 제공한다.

또 전문 큐레이터가 매달 새로운 주제로 작품들을 선별해주는 큐레이션도 제공해 소비자들 이 다양한 작품들을 편리하게 즐기도록 했다.

한상숙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가정에서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전 세계 더 프레임 사용자들의 다양한 예술적 취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술관, 작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세계 아동복 브랜드 '아이스비스킷' 오픈 9일 오전 광주신세계 본관 6층에 새롭게 문을 연 유아·아동복 패션브랜드 '아이스비스킷' 매장 직원들이 고객에게 가방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아이스비스킷'은 스트리트 감성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표현하는 브랜드로, 의류와 가방, 양말, 모자, 주얼리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정부 비축 천일염 400t 내달 27일까지 방출

포장 단위 10kg으로 줄여 판매

정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정부 비축 천일염 400t을 추가 방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차 방출 시에는 20kg 포대

단위로 판매했으나, 이번에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10kg으로 포장 단위를 줄여 판매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400t씩 총 800t의 비축 천일염을 방출했다.

이번 방출분은 하나마트, GS 더프레쉬 등 주

요 유통업체를 통해 7월 소비자가격 대비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천일염 주산지인 신안군에서도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신안1004몰'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천일염 10kg 상품을 1인 2포대 한정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방출 이후 소비자가격 동향을 지속 관찰해 필요시 추가 방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형마트 3사 추석선물 예약 판매 돌입

한 달 이상 앞두고 발빠른 대응

고물가 고려 저가 상품 선 보여

대형마트 3사가 다음 달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찌감치 선물세트 예약판매에 들어간다.

이마트는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전 점에서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행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기존 주력 상품보다 저렴한 실속 세트와 최근 선물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기 과일인 샤인머스켓 세트는 5만원 미만 물량을 확대했고, 축산도 한우·양념육·돈육 등 '가성비' 세트 7종을 새로 선보인다. 가공 식품의 경우 프리미엄 올리브 오일과 위스키 등 고객들이 선호하는 상품들로 준비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3년간의 명절 선물세트 판매 데이터에 최근 트렌드까지 고려해 가성비, 프리미엄, 실용성, 이색, 친환경 등의 특색을 가진 700여 개 품목을 선별했다.

롯데마트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마트 전 점과 롯데마트몰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예약 판매한다.

지난 3년간의 명절 선물세트 판매 데이터에 최근 트렌드까지 고려해 가성비, 프리미엄, 실용성,

이색, 친환경 등의 특색을 가진 700여개 품목을 선별했다.

행사카드 구매 시 상품권 증정 또는 상품 할인, 엘포인트 회원 할인, 구매 수량에 따른 상품 추가 증정, 4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들어 명절 선물세트도 예약판매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2021년 설날에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에는 약 55%에 이르렀다. 다양한 혜택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구매하려는 고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도 같은 기간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 전체 매출에서의 예약판매 비중이 60%를 넘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예약판매 물량을 지난해에 비해 약 35% 늘렸다.

가격대도 2만원 미만 저가, 2만~5만원대 중저가, 6만~10만원 중고가 등 고르게 분포한다. 이 가운데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저가 비중이 전체의 40%를 차지한다고 홈플러스는 밝혔다.

상품군은 전통적인 인기 선물세트인 축산과 주류에 집중했다. 행사카드 결제 고객 또는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는 최대 40% 할인해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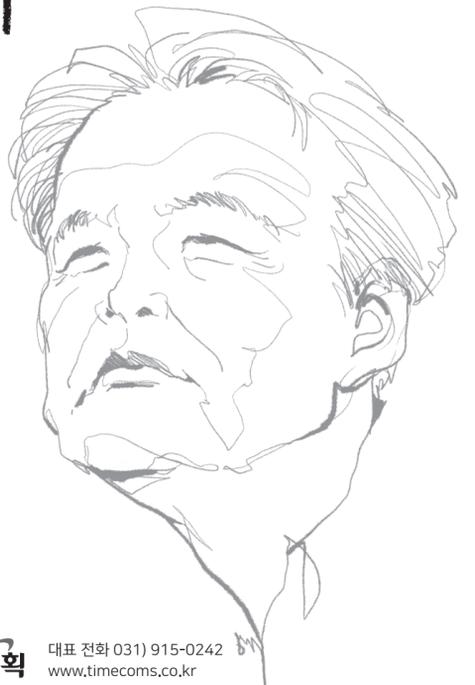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